

농업인 대상 융자금 지원 확대 나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융자금 한도 상향 이율 낮추기로

전주시가 시장개방과 자금 부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융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개정된 '전주시 농촌소득금고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융자금 한도를 상향하고 이율도 낮추기로 했다.

융자금 지원은 농업인의 경우 종전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났고 법인 역시 종전보다 2000만

원 늘어난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율의 경우 3%에서 1%(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로 낮춰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3일까지 농지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동 주민센터에서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거주 또는 사업장을 둔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근로 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소

득원 개발을 위한 영농환경개선 등 영농을 목적으로 하면 융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금 지원받아 상환 중이거나 금융부실 거래자, 세대원 중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농가, 지방세 등 체납자의 경우 제외된다.

시는 신청 마감 후 대출서류 심사, 영농 실태조사 및 지방세 등 체납여부를 확인한 뒤 오는 10월말까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를 거쳐 융자금대상자를 확정, 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융자금 지원 규모는 7억 원으로, 상반기에 1억원을 융자 지원했다.

노한형 전주시 친환경농업과장은 "노후화된 영농시설 보수 또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농기계 구입 등의 자금이 부족하여 열악한 영농환경으로 고생하는 농업인들이 융자금 지원 혜택을 많이 받기를 바라며 농업인들이 저이율로 편리하게 융자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국내 최대 할인행사 '사이버 핫 데이즈'

13일까지... 특정 카테고리 상품 추가 할인 등 혜택 제공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국내 최대 온라인 할인행사인 '사이버 핫 데이즈'가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열린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사이버 핫 데이즈는 패션데이(10일, 패션·패션잡화), 디지털데이(11일, 가전), 뷰티데이(12일, 화장품), 리빙데이(13일, 생활용품·식품) 등 각 요일별 4개 특정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사이버 핫 데이즈를 통해 특정

카테고리 상품에 대한 추가 할인, 덤앤덤(1+1, 사은품) 판매, 무이자 할인가간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온라인업체의 할인 여력 확대를 위해 행사기간 중 국내 배송비도 인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의전화(1670-6123)나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페이지(www.koreasalefest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본격화'

저렴한 임대형 기업 입주 공간 확충·일자리 창출 효과

전주시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청년창업의 거점이 될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내 입주형 아파트형 공장 건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는 팔복동 첨단벤처단지 내에 제조혁신형 기업공간을 확충해 창업 초기기업과 청년창업기업 등의 입주를 해소하기 위한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를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국비 160억원 등 총 사업비 268억원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6층의 연면적 1만2,200.5㎡ 규모로 최대 9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제조혁신형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부지는 지난 2014년 9월 첨단벤처단지 입주기업화제로 공장 3개동이 소실되었던 곳으로, 시는 판넬형 공장이 밀집돼 있던 첨단벤처단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기업입주 공간으로 재공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건축실적공모를 통해 당선자를 선정했으며, 10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설계에는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최선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옥상정원을 만들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식당, 회의실 등 기업지원 및 복지시설도 함께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시는 협소한 주차공간으

로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았던 첨단벤처단지 실수요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불류 승하차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한 주차공간(150대)을 확보했다.

시는 향후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유치 및 임대 활성화를 위해 준공 1년 전부터 입주업체를 모집할 계획이며, 신생벤처기업이 부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또, 캠퍼스종합기술원과 국방벤처센터 등 벤처단지에 입주한 기관과 연계해 R&D연구와 시제품 제작, 장비임대,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기업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되면 지식기반 업종과 기계 관련 제조업 등의

기업이 입주해 19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7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23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주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가 신생벤처기업의 요람으로 우수기업을 많이 배출하고, 이들이 독일형 중소기업과 향토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생벤처기업의 입주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중노송동에 IT기반 업종을 타겟으로 하는 제2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카카오내비, 추석 연휴 길안내 3000만건 돌파

카카오내비가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8일간 3000만건 이상 길안내를 기록하며 주간 최다 이용 기록을 경신했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스타필드 고양'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내비가 지난날 30일부터 10월8일까지 3038만건의 길안내 수를 기록하며 주간 최다 이용 기록을 경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검색 및 경로 재탐색을 제외한 길안내를 시작한 기준이다.

가장 이용이 많았던 날은 추석 당일인 4일과 다음날인 5일이었다. 지난 5일 하루 길안내는 400만건을 넘었다.

카카오내비가 추석 연휴전 사전 예측한 귀성·귀경길 도로 정보는 실제 결과와 일치했다.

실시간 교통 예측 알고리즘 및 빅데이터 분석이 이같은 예측이 가능케

했다. 이용자들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스타필드고양', '김포국제공항' 등 소풍물과 교통 거점에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내비를 이용해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올해 8월 개장한 쇼피드마파크 '스타필드 고양'이었다.

올해 설과 지난해 추석때 가장 많이 방문한 목적지가 '스타필드 하남'이었다.

김포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은 나란히 2·3위를 기록하며 명절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줬다.

이외에도 '현대아파트'가 5위를 기록하며 최다 길안내 목적지 10위권에 처음 진입했으며, 전주한옥마을이 8위, 이케아 광명점이 10위를 기록했다.

신명진 카카오내비 팀장은 "추석연휴 전 귀성·귀경길 도로 정보를 예측해 공개하고 인기 맛집 및 여행지 187곳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이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공기업 활용 드론,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

올해 말부터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드론 구매시 국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기부 지정 품목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 요 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현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2015년 말에 지정돼 내년 말 재지정이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드론이 이번에 추가 지정되도록 추진된다.

이번 드론의 경쟁제품 지정은 국내 중소기업의 여건과 향후 시장 등을 감안해 이뤄졌다.

드론의 경우 국내 생산 중소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항공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 융합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한 만큼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드론 시장은 민간이 278억원, 관용이 54억원 규모다. 중소기업 23곳과 대기업 9곳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번에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범위는 고정익 및 군사용을 제외하고 자체 중량 25kg 이하, 운용 상승 고도 150m 이하인 무인비행체 1개 품목이다.

중기부는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는 오는 12월경 경쟁제품 추가지정 절차를 완료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은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선점하고 있는 반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낮은 인지도로 인해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향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판로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드론 산업 및 관련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 **서부신시가지 도형열**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